

더불어사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되자

종합문명사회가 도래함을 깊이 인식해야

축사

선구자적 정신으로 세상의 등불 되기를

졸업이라는 의식을 자각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모든 경희가족과 함께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5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1천년을 향한 인간적인, 인간중심의 지구공동체 사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여러분 모두는 세계문명의 중심지가 될 희망찬 동북아시아의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는 우리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안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제3의 민주혁명을 통한 보편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으며 정치·이념·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변신적 변화의 과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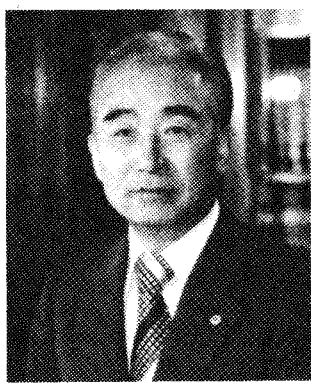
배타적 국가주의, 이념적 계급주의, 군국적 제국주의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인류의 공로·공영을 바라보며 동서의 문

화가 하나로 승화·융합되는 이른바 종합문명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 이제 지구촌, 인류가족, 세계공동체 사회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에게는 자랑스러운 경희

인으로서 또한 몇몇한 한국인으로서는 하나의 역사적 책임이 함께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과거 여러분의 선배, 경희인들의 선구자적 봉사·기여의 정신인 것입니다.

일찍이 전후의 폐허위에서 온 국민이 가난과 무지의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문맹퇴치운동, 애국독학운동, 계몽봉사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잘살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온 국민의 가슴



조영식
(학원장)

우려하며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인간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섰으며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류사회가 동서의 극단적인 냉전체제속에서 온 인류가 언제 타락지 모를 제3차 핵대전의 위협에 전율하고 있을 때 우리 경희는 유언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공포케 함으로써 국단적인 냉전의 벽을 허물고 화평한 인류의 신화해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초석을 놓아 주었

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우리 인류가 물질문명의 한계점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도덕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로 인한 인간부재의 사회가 되어감을 깊이 우려하며 다시금 도덕과 인간성 회복을 통한 제2 르네상스운동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 이제 비록 여러분의 몸은 정든 이 교정을 떠나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 받은 진정한 경희인으로서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운동에 기여이 동참하여 우리사회 그리고 온 세계에 이상의 등불을 밝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광스런 졸업을 축하하며 전도에 무궁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모든 경희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학문을 연마한 결과, 오늘 학위취득의 영광을 안게 된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분이 갈고 닦은 지식은 사회에서 유용한 자산으로 크게 활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졸업생 여러분이 참여하여 이끌어 나아갈 사회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사회가 될 것이라 예견됩니다.

우리는 산업화사회로 이행한 지 겨우 30여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보화사회는 벌써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은 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졸업생 여러분들을 과거처럼 다리 뻗고 편안하게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의 발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여러분과 같은 고급인력도 쉽게 노후화 될 것이 뻔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없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

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문가라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졸업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쟁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지식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 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졸업생 여러분은 졸업이라는 의식을 해방과 마감의 의미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과제 부여와 자각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점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증증하고 있으며, 나라 안의 경제는 경제구조의 편중과 무역 역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로 내부적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도 어려움에 처해 있

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학간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개혁과 개방의 물결도 점차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대학의 존재를 결정 지우는 도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사회는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때문에 독단적이고 편협한 천재보다는 진실되고 화합하는 인재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유도 경희 정신으로 표방되어 온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의 정신 속에서 교육받은 결과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 다양성과 개성으로 표방되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완성품으로 사회에 배출한다는 오만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찌 완성된 지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연구와 개발에 적응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는 재교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총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때에는 학교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면 동문회의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경희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경희이며, 경희의 이름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경희의 발전은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며, 여러분의 발전은 경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한 경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뒷바라지에 애써주신 학부모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발선에 선 경희인들에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4년동안 보다 자율적인 가운데 스스로의 힘을 키워 졸업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며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은 또다른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또는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지금 출발하려는 마라톤 선수처럼 미래의 일거리를 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어찌 탄탄대로만 있겠습니까?

참고 인쇄하며 자주적인 힘을 바탕으로 보다 힘차고 현명하게 영원한 '경희인'으로서 출발선에 섰던 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달리십시오.

영광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딛는 졸업생들에게 힘차게 화이팅을 외칩니다.

김복현

(수원총무과 우편실담당)

졸업, 새로운 시작의 발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대동제... 이렇게 연속되는 행사를 치러내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경희에서의 96학번 한 학우의 1년 생활이 어느새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젠 경희라는 이름에 익숙함이 깊게

3천여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세계속의 당당한 경희인이 되기를

배어 있는 선배님들의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희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이 끝이라는 의미의 하나의 행사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커다란 발판임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선배님들, 앞으로 각자 나름의 생활에서 시작의 싹을 틔워 나간다고 희망이 라는 소중한 단어를 잊지 말고, 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희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슴깊이 새겨두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문리대 국문2)

능동적 생활습관을 갖자

◇...먼저 형설의공을 쌓은 3천여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제 곧 눈앞으로 닥쳐올 사회의 온갖 난관을 현명한 판단으로 헤쳐나가려면 건전한 정신과 이를 뒷받침할 육체적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라 이러한 건강에

위험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름대로의 규칙적, 적극적인 Life style을 갖는 것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아무췌로 어떠한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의지로 자신의 건강을 영위해 나갈 줄 아는 경희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유동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교발전의 기틀이 되어주기를

◇...여러분의 영광스런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멋진 대학생활을 계획하던 옛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벌써 미래를 설계하는 새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자랑스럽습니다.

선현들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했고, 또한 호적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지러운 사회 질서 속에서 경희인들은 지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부족한 듯하여 더 열려는 불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가진것은 적어도 넉넉한 듯하여 나눠주는 용기있는 사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교에서 익힌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높은 이상을 가지고 각박한 사회속에서 대성(大成)하여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장도(壯途)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서정석

(정경대 무역학과 교수)

원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후배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졸업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취업하여 생활전선에 투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어느 경우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냉엄한 조직체의 일원으로 처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뒤따를 것입니다.

21세기는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조국의 운명을 거머쥔 21세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경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에서 터득한 지식을 심분 발휘할 것이며 자기계발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원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운택

(양천장학회 이사장)

또다른 출발점, 졸업!

◇...여러분의 제45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가족친지 여러분에게도 감사

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은 것이 었기에 같은데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축하메시지를 띄워 보내게 된 것이 원치 어색하면서도 가슴 뿌듯하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지난 4년 동안의 정들었던 경희캠퍼스를 뒤로 한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써 제역할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생활은 중요하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진취적인 행동과 창의적인 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바로 이 대학 4년동안에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새로운 자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힘든 임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와 대학의 낭만과 학문의 심취도 잠시뿐, 취업준비에 정열을 쏟아야 했습니다. 졸업이 주는 의미, 이것은 마지막이 아닌 또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희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생활에 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순영

(수원기획관리실 예산담당)

외국어 교육 1번지!

매월 1일 개강 수시 등록·수강

YBM 시사영어사 학원
(본원)

영어 · 일어 · 중국어

- 엘리트 종합 TOEIC
- 영어 순해
- Interchange 회화
- TOEIC L.C.
- 기초 L.C.
- 미국인 회화
- TOEIC R.C.
- AFKN 청취
- 통역대학원 입시반
- TOEIC 실전총정리
- VOCABULARY
- 일본어 문법·독해
- 아카데미 TOEFL
- 영작 문
- 일본어 일어회화
- 신강 TOEFL
- 영어실력기초
- 중국어 문법·회화
- TOEFL L.C.
- Communicate 회화
- 주말 특별 과정
- Side By Side 회화

미국인 회화과정(YEC)
YBM English Conversation

- 정원제 실시
- Level Test 후 반편성
- 강사진 전원 Native Speakers
- 본 학원에서 개발한 최신교재 사용

대표전화 : 276-0509

탑골공원(종로2가) 맞은편 YBM 시사영어사 뒤

언어리세게로 개강 3월 3일

세계화!! 말이 술술 통합니다.

전문과 함께라면 외국인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언어수업을 마친 친구를 만났다. 반은 부러움에 많은 시 기심으로 말 따라하고 싶었다. 이제 같은 반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다. 그 동안 이 친구를 만나 외국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배우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우리들 앞에 외국인 말이 자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는가. 나는 기쁘다. 생각하며 청취에서 6개월 동안 배운 실력을 보라. 친구의 놀라움과 당찬 수강생의 자랑스런 모습이 보인다. 친구를 따라가는데 왜 그리 기분이 좋을까...

●영어회화: EFL코스, SIDE BY SIDE A·B, STREAMLINE, FREE TALK
●TOEIC종합: TOEIC L/C·R/C, LISTENING, ENGLISH, A TOEFL, TOEFL종합, VOCABULARY, AFKN, AMERICAN HEARING, SCREEN ENGLISH
●통역대학원: 영작문, 영어순해, GRE/GMAT, 전문반, TIME, 대학원입시, 영어독해, 영어특제, 영어능력시험, NMT, 영어통역대학원 일본회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주말특별강좌

●매월 TOEIC, TOEFL 모의TEST 실시

청문외국어학원
738-5151 (대동2가 종로서적부)

Here is the PAGODA!!

지구촌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세계를 우리의 인재로!

이 지구 끝 남극점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극기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올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 DO' 정신은 귀히 받들고 외국어 정상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27년 동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은 저희 PAGODA는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PAGODA 종로: 274-4000 PAGODA 압구정: 3442-4000 PAGODA 신촌: 706-4002 PAGODA 강남: 501-4002

← 종로파고다 → 압구정파고다 → 신촌파고다 → 강남파고다 →

← 신촌파고다 → 강남파고다 →